

2018. 9. 30.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고린도서신 강해24)

## 고후3:1~18 “복음의 영광과 진리 안에서 신뢰하고 존중합시다!”

### I. 들어가면서- 삶의 예배, 복음 앞에서 자기를 비추는 것!

**로마서**는 기독교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이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구원, 1~11장**)과 의롭게 된 자들의 삶(**12~16장**)에 대한 교훈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는 기독교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전인격의 변화, 곧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2:1~2**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12: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롬12:3>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삶의 지침으로 ‘자기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가르친다. 곧 성도는 믿음의 분량과 냉철한 판단으로 항상 자기를 이해해야 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자기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성도의 자기 인식은 대개 이중적인 양상이 포함된다. 하나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는 삶으로 교만과 자기 의와의 싸움을 지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열등감과 무기력함과 의존감과 두려움 등을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결국 죄가 가져다 준 교만과 자기 의, 그리고 온갖 두려움과 낙담이 지배하는 자기를 복음의 영광과 진리 앞에 건강하게 세울 때 삶의 예배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책망한 편지(**고린도전서와 몇 편지들**)를 보낸 것과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을 빌미로 고린도교회에 바울을 향한 불신을 품은 자들이 일어났기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복음의 영광과 말씀 사역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교훈한다.

지난주에 살펴본 **2장**은 바울이 방문일정을 변경한 것은 고린도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방문 대신 눈물의 편지를 보내었고, 죄를 철저히 경계하되 회개한 자에겐 용서와 긍휼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말씀 사역은 인생을 생명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엄중한 진리의 일임을 확인했다.

본문은 복음의 영광과 진리를 소개하며 사역자를 향한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도록 안내한다.

### II. 복음의 영광과 진리 안에서 서로를 신뢰합시다!(1~5절)

바울은 앞에서(**1:12~14, 2:14~17**)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의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말씀 사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본문 **1절**은 바울이 또 다시 사역자로서의 추천서 문제에 관하여 질문한다. 특히 고린도교회에 말씀 사역자로서 자신의 공적이며 객관적인 추천서가 필요한지, 또한 다른 사역지를 위해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거푸 물으며 감정을 짙게 드러내는 듯하다.

이처럼 **고린도후서**에는 본문 외에도 사역자들의 추천서 문제를 여러 번(**4:2, 5:12, 6:4,18, 12:11 등**) 언급한다. 한편, 초대교회 당시 말씀 사역자를 추천하는 것은 신학 검증을 위해 매우 유용한 과정이었다. 그 사례로 **행15장**에서 안디옥교회에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신학적 갈등(**할례의 필요성**)이 발생하자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한 뒤 안디옥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공적으

로 추천하며 신뢰하는 편지를 써 보내었다(행15:22~29). 바울 역시 교회에 사람을 추천한 사례가 여러 번이었다(롬16:1의 **비비를 로마교회에**, **고전16:10~11의 디모데를 고린도교회에**, **빌2:19~24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 등**). 이렇게 공적인 권위와 신학적 안전과 후원을 격려하는 내용 등을 담은 편지로서 사역자를 추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자기의 추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고린도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바울에 관한 추천 편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신하고 있었으며, 인간적인 추천서를 가지고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신학으로 고린도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된 자들이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불신하도록 조장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고후11~13장).

하지만 바울은 2절에서 고린도교회 자체가 바울의 사역을 공식적이며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열매로써의 편지, 곧 추천서라고 밝힌다. 왜냐하면 3절, 고린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역했던 자가 바울(과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이다(행18:1~11, **고전3:6**).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시며,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역사로 진행된다. 그러기에 고린도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편지(그리스도께서 작성하신 추천서)이며, 사람의 손이나 먹(잉크)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 것이다.

이처럼 타락한 죄인이 다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요3:5~6), 잡히시기 전 만찬을 행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교훈하셨다(요14:26, 15:26, 16:8,13 등).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일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며(롬8:9,15:19), 고린도교회가 자신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세워졌다고 이미 강조하였다(고전2:4~5).

이와 같이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예언한 것(렘31:31~32)과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이 형성될 것(겔36:26~28)을 예언한 말씀의 성취이다.

그래서 바울은 4~5절에서도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택함 받고 고린도로 보냄 받았으며(1:1,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음을 한 번 더 설명한다.

이로써 고린도교회가 바울에게 인간적 권위를 담은 추천서의 유무(有無)로써 시비하는 것은 부당함을 변호한다. 또한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복음의 영광과 진리의 풍성함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어느새 무디어진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써 새롭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복음 사역자나 교회 직분의 권위는 회원들의 존중(인간적인 기원)보다 그것을 명하고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기원한다. 그러기에 말씀 사역자나 직분자를 향한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심지어 롬13:1~7은 세상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존경하도록 안내한다.

사실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자기를 비추지 않으면 세속적 욕망이 스멀거리며 솟아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의 갈등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본은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장 먼저 자기를 돌아보며 세우는 것이다. 그런 다음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다.

### III. 복음의 영광과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6~18절)

본문의 후반부(6~18절)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을 전하는 자기의 사역을 구약의 율법 및

모세의 사역과 비교하며 더욱 영광스럽다는 것을 교훈한다.

바울은 6절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문자(율법을 지형함)가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새 언약(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반복적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6절 뒤부터 11절까지 문자로 새겨주신 율법과 그것을 전한 모세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기의 사역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비교한다.

첫째, 6절 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복음은 생명을 준다. 비록 레18:5(“내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여라. 내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의 말씀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에게 살도록 주신 은혜의 규정임에 틀림없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롬3:23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는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에 처한 죄인임을 교훈한다. 그러나 롬3:22,24~30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롭고도 완전한 의가 주어졌고, 롬8:10,15~17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가르친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율법은 죽음을,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여 생명을 준다.

그러기에 7~8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가르칠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웠다면(출34:29~32)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성령의 사역은 더욱 영광스럽다.

둘째, 9~10절, 율법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확증하는 기능이지만 복음은 의를 가져다준다. 이는 첫 번째 비교의 원인이다. 곧 율법은 아무도 지키지 못하였기에 결국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영적 무능력의 상태를 고발한다. 반대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은혜의 선물임을 확증한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사역도 영광스러웠다면 복음 사역은 더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11절, 율법은 시간적으로 보면 조만간 사라질 임시적 효력을 지녔지만 복음은 영원히 지속되는 완전한 구원의 효력을 보장한다. 이는 율법이 인간을 정죄하여 죽음에 합당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기능과 함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있음을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히10:1~20은 율법이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그림자이며,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써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 새롭고 완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설명한다. 갈3:19~26에서도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가두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고 교훈한다. 결국 롬10:4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고, 롬8:4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의를 힘입어 율법을 완성하였다고 가르친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영광과 진리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겹쳐서 설명하였다. 덧붙여서 12절,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소망하기에 매우 담대하게 사역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어지는 13~18절은 출34:33~35을 인용하며 아직도 율법에만 권위를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과 어리석음을 고발한다. 곧 모세가 처음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얼굴의 영광을 드러냈다가 이후 수건으로 가렸고, 성막 안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시 수건을 벗

었다고 기록하였는데, 바울은 13절에서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지속되지 않고 사라질 것을 알았기에 백성들이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렸다고 해설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복음 사역은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기에 굳이 가릴 필요가 없다고 부연한다.

아울러 14~16절,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질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덮었던 모세처럼 수건으로 마음을 덮어서 아직도 율법의 영광이 지속되는 것으로 고집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을 완성하셨기에 주님께로 돌아오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의에 이르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내용(요14:16,26, 15:26, 16:7,13~15, 8:32 등)을 확증한다.

더 나아가 18절은 이미 마음의 수건을 벗은 성도들이 주님의 완전한 영광을 보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더 크고 완전한 영광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지속적이며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것(μεταμορφουμεθα 메타모르푸메따, 지속적이며 점진적 변화)을 선언한다. 요일3:2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임을 교훈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영광과 영원하면서도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 고린도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과 진리를 갖고 있는 지 확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격려하며, 거듭 자기의 사역이 결코 비난받거나 불신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신뢰받으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 IV. 나오면서- 복음의 영광과 진리 위에 굳게 섭시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겪는 다양한 시험과 고통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영적 처방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우는 것임을 확인했다. 곧 복음의 영광과 영원한 진리를 마주하며 자신의 시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베드로는 다양한 시험을 겪는 성도들에게 살아 있는 소망을 확인시키며 하나님과 복음의 영광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다음과 같이 교훈하였다.

<벧전1:6~7>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판단하며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솟을 때, 교회의 일로 혼란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먼저 자기를 세우며 강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므로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

\* 찬송가 458장